

금산군, 베트남서 인삼 제품 671만 달러 수출 성과

✎ 최성열 기자 | ✎ 승인 2025.08.12 13:05

8월 7일~9일, 2025 베트남 비엠티푸드(VietFood) 전시회 참가
소공인 해외 진출 기반 마련과 수출 경쟁력 강화 나서



▲ 2025 베트남 비엠티푸드(VietFood) 전시회 참가/금산군 제공

충남 금산군이 금산지역 인삼식품 제조 소공인 10개사와 함께 2025 베트남 비엠티푸드(VietFood) 전시회에서 671만 달러 수출 상담 및 250만 달러 상당 업무협약(MOU), 4만 달러의 현장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 군은 소공인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과 인삼식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충남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함께 참여했다.

특히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펼쳤으며 시장 조사와 바이어 사전 매칭, 제품별 수출 대응력 진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상담 중심의 수출 지원 플랫폼을 제공했다.

현장에서 운영된 케이-인삼(K-INSAM) 홍보 체험관에서는 금산군 및 제품 홍보 영상과 시식, 경품 이벤트 등이 운영돼 바이어와 현지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군은 이번 전시 성과를 바탕으로 소공인 개별 기업의 수출 전략 수립, 인증 대응, 바이어 연계 프로그램 등 후속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 참여를 통해 소공인들이 시장을 직접 체험하고 경쟁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금산인삼 소공인의 수출 자립과 판로 다변화를 위한 밀착형 지원과 해외 네트워크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산=최성열기자



최성열 기자 csr48a@naver.com